

GIST, 해외 연구기관에 대학원 장학생 파견...

연구 집중토록 9개월간 월 300만 원 지원

- 올 3월 선발된 'GIST-IREF' 장학생 4명에게 9개월간 장학금 총 1억 2백만 원 지급... 출국 준비비 최대 400만 원 별도 지원
-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, 스위스 로잔연방공과대학교, 호주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, 스웨덴 린셰핑대학교에 파견돼 국제공동연구 수행



세계적인 무대에서 자신의 연구를 펼칠 기회!

Graduate International Research Experience Fellowship
GIST-IREF 장학생에 도전하세요.

GIST는 대학원생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위한 파견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.

장학 혜택	생활비 지원 ○ 월 300만원 *최대 9개월까지 지원
	준비비 지원 ○ 아시아 지역 300만원, 미국/유럽 지역 400만원 * 파견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, 준비비 미지급

신청 기간 * 상시 접수 *매월 10일까지 접수된 서류에 대해 개별 알람 발송 예정	선정 인원 * 예산 소진 시까지 지속 선발	파견 기간 * 제한 없음
신청 대상 * GIST 대학원생으로 1학기 이상 이수한 자 *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	장학생 의무사항 * 파견 종료 후 2년 이내 공동연구 논문 제출	문의처 * 062-715-2054

광고문 바로가기 ▼

광주과학기술원
GIST Graduate School of Science and Technology



▲ 'GIST-IREF 장학생에 도전하세요' 장학금 지원 안내 포스터

광주과학기술원(GIST, 총장 임기철)은 'GIST 대학원 국제 연구 경험 펠로우십(이하 IREF)'의 첫 장학생 4명을 최종 선발하고 9개월간 1인당 매월 300만 원을 지원한다고 25일(목) 밝혔다.

GIST는 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타국에서의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지원하고자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'GIST-IREF(Graduate International Research Experience Fellowship)' 장학금 제도를 신설하여 이번 학기부터 운영하고 있다.

제1회 GIST-IREF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▲융합기술학제학부 석박통합과정 박명진 ▲지구환경공학부 박사과정 신수진 ▲신소재공학부 석박통합과정 이민우 ▲신소재공학부 박사과정 이종원 학생 등 4명에게는 출국 준비비로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며, 이와 별도로 파견지에서 온전히 연구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매월 300만 원의 생활비가 9개월간 지급될 예정이다.

이들 4명의 IREF 장학생은 각자의 분야에서 학업과 연구 성과가 우수한 학생들로 이달부터 ▲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▲스위스 로잔연방공과대학교 ▲호주 연방과학 산업연구기구 ▲스웨덴 린셰핑대학교로 파견되어 공동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.

융합기술학제학부에서 지능로봇을 연구하고 있는 박명진 통합과정생은 지난 3월 중순부터 '혈관 내 약물 전달을 위한 마이크로롤러 개발'을 위해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.

박명진 학생은 "연구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좋은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해 준 GIST에 감사한 마음"이라며 "젊은 연구자로서 GIST를 대표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유의미한 성과를 얻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"고 말했다.

홍석원 교무처장은 "대학원생들의 연구 역량과 학문적 성장을 위해 해당 장학금 제도를 더 활성화할 예정이며, GIST 학생들이 해외에서 우수한 연구 역량을 발휘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"고 밝혔다.